



연변, 변방 개방 다그쳐 대외무역에 '가속도'

올해 들어 연변주에서는 변경지역의 개방 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정책 혜택을 적극 활용하며 무역 시장을 깊이있게 개척함으로써 대외무역에서 도약적 돌파를 이루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 주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은 75.8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03.9% 증가했는데 이는 전 성 무역 비중의 24.9%로 전 성 2위를 기록했고 단계적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연간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다.



최근 기자가 길림지통(智通) 다국 전자상거래유한회사를 찾았을 때 컴퓨터 화면에는 주문 정보가 빠르게 스크롤(滚动)되고 있었고 종업원들은 실재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국 주문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2023년 5월에 설립된 이 회사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수입 상품을 취급하며 종합시험구의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정책을 바탕으로 '온라인 + 오프라인', '도매 + 소매' 융합 모델을 채택해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다국 류통업체 및 오프라인 채널 고객에게 정품 직수입, 창고 물류, 통관 규정 준수, 채널 류통 윈스턴 다국간 공급망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회사의 협력 브랜드는 80개를 넘어섰으며 자체로 개발한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한국 공장에서 최종 중국 소비자까지의 전 과정 디지털 통제관리를 실현해 다국간 주문의 효율적인 배송을 보장하고 있다.

연변주는 에너지 구조의 녹색 전환 수요를 단단히 틀어쥐고 흥흥(鸿兴) 에너지, 요정(耀鼎)가스 등 중점 기업을 목적성 있게 인도하여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청정에너지 수입 강도를 높임으로써 수입 규모의 고속 상승을 실현했다. 1월부터 2월까지 청정에너지 수입액은 2억 2,300만원으로 동기 대비 224.2% 증가되었다. 해외시장의 수요를 예의 주시하면서 연변주는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중저차 수출의 질적 향상과 광적 증가를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중합공업무역, 훈춘 서백탁 등 본토 수출 기업을 인도하여 수출 모식을 혁신하고 특수 부품의 개조 및 추가 조립을 통해 차량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기존의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 1월부터 2월까지 수출액 1억 8,700만원을 완수, 동기 대비 220.8% 성장함으로써 전 주

수출 성장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산업 토대에 의거하여 해외시장의 수요 회복 기회를 단단히 틀어쥐고 화학공업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추진하였는데 1월부터 2월까지 전 주적으로 화학공업품 수출액 8억원을 완수, 동기 대비 145% 성장하였다.

정밀봉사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역 발전의 자신감이 더욱 증대해졌다. 연변주는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연변 무역 대출' 자금 조달 우대 정책을 잘 활용하며 성급 재정자금의 추가 투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정책 자금의 지레대 효과를 확대하고 광물 제품, 해산물, 완성차 등 수출입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기업 자금 회전 압력을 완화했다. 지금 한창 훈춘전지다지 털무역회사를 위해 3,000만원 대출을 처리하는 등 기업 응자의 막힌 곳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있다.

업체 모델을 혁신하고 대외무역 발전 경로를 넓혀 훈춘청려국제중공업보세 중계 무역의 상시화 운영을 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항공 운영주체 연결 플랫폼을 주동적으로 구축했다. 보잉 737-300, 737-400 등 킥랩 운송 적합 기종에 대해 기업, 교통부, 훈춘중합보세구와 연합하여 여러차례 정부와 기업 연결회를 개최하고 운송 방안을 전문 토론하였으며 려객기 화물 운송의 한계를 극복 해결하고 새로운 화물 운송 전용기 통로를 적극 탐색하고 개통하여 특수 제품의 다국간 운송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다. / 길림일보

길림신문사·한중도시우호협회 협력교류협약 체결



— 길림성과 한국, 경제·문화·청소년 교류 협력 강화

4월 14일, 길림신문사와 한중도시우호협회 협력교류협약 체결식이 길림신문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길림성과 한국간 경제·문화·청소년 교류 및 미디어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협약식에는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과 길림성마용뷰티화장품협회 양철 회장 및 길림신문사 유창진 부총편집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협약식후 교류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교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기식 회장은 "한국과 력사적, 지리적으로 관계가 깊은 길림성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며 "한중도시우호협회는 길림신문사와 함께 긴밀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진 부총편집은 "중한 교류 경험이 풍부한 한중도시우호협회와 함께 길림성과 한국의 교류를 위해 협력하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건기자

<길림성미성년자보호조례> 6월 1일부터 정식 실시

<길림성미성년자보호조례>가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총 43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학교는 국가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점용해서는 안되며 의무교육단계의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집단 보충수업을 조직하여 학습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생괴롭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

격히 배제 조사하고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자 교제 행위 중칙, 학생 기숙사 안전관리 규정, 영상 모니터링 관리 규정 등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그 누구든 학교, 유치원과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 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된다. / 인민넷

령수증 데이터로 본 길림성 1분기 경제 온도

세수 데이터는 경제 운영의 바로미터(晴雨表)이다. 최근, 국가세무총국길림성세무국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세수 령수증 수치는 전 성의 경제 운영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었으며 고품질 발전의 안정적인 발걸음을 뚜렷이 확인해주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활력과 회복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1분기 제조업 매출이 전 성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91%, 장비 제조업 매출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33%에 달했다.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과 계측기 제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86%, 27.71% 증가하며 실물경제의 '안정제'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발전을 위한 기반이 더

욱 탄탄해졌다. 봄철의 생기는 세수 령수증 수치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1분기 전 성 주민 서비스업, 오락업 매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45%, 80.77% 증가했다. 문화관광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문예 창작 및 공연, 관광풍경 구 관리, 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13%, 25%, 41.84% 증가했다. 과학기술혁신 활력의 지속적인 분출은 길림성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 1분기 첨단기술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성장하며 비교적 빠른 발전 흐름을 이어갔다.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 산업의 빠른 발전에 따라 웨어러블 스마트기기(可穿戴智能设备) 제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48% 증가했다. 과학기술 자원의 류통도 활발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24% 증가했다. 녹색 전환의 발걸음도 마찬가지로 굳건했다. 신에너지산업이 왕성하게 성장했는데 1분기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49%,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환경보호 등 녹색 기술 보급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51%, 85.28%, 32.52% 증가했다. 바이오매스(生物质能) 발전은 12.72% 성장하며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가 함께 힘을 발휘해 생태와 경제의 상생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설비 투자의 가속화와 원활한 물류 대동맥이 길림성의 고품질

발전에도 함께 힘을 보탤다. 1분기 기업의 기계설비 구매는 비교적 빠른 성장 흐름을 유지했는데 특히 일반 장비 제조업, 전력 및 열 생산 공급업의 기계설비 구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45%, 80.44% 증가했다. 교통 운송 물류는 사방팔방으로 원활하게 이어졌으며 복합 련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72% 증가했다. 한강 또 한강의 세수 령수증마다에는 길림성 발전의 굳건한 발자국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있다. 길림성세무국 관계자는 "각종 세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확한 서비스와 보호를 통해 발전을 뒷받침하여 길림성 고품질 발전이 더욱 안정되고 더 멀리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길림일보



봄을 맞아 연길공원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곱게 피어났다. 4월 16일, 연길공원에서 진달래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의 한때를 남기고 있는 시민들. / 김파기자

5.1 연휴 기차표 판매 시작! 철도부문 승객 차표 구매와 출행 보장

15일,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026년 철도 5.1 연휴 운수는 4월 29일에 시작되어 5월 6일에 끝난다. 철도부문은 5.1 연휴 운수를 면밀히 조직하여 승객들의 휴가일 차표 구매와 출행을 보장한다. 4월 29일 기차표는 15일부터 이미 판매를 시작했다. 국철그룹 려객운수센터 책임자는 올해 5.1 연휴 기간 친척방문, 관광, 레저휴가 등의 나들이 수요가 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 승객 류동량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인민넷

전국 철도는 성수기 운행도를 시행하여 하루 평균 약 1.3만대의 려객렬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4월 29일 밤부터 5월 2일 새벽까지, 5월 4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북경-상해, 경광, 경하 등 고속철도 간선에서 야간 고속철이 운행된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5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북경에서 심수, 남녕, 곤명; 상해에서 광주, 해주, 북경; 상해에서 사천, 귀주 방항으로 가는 고속철도 침대렬차가 추가로 운행된다. / 인민넷

2026년 1분기 GDP 동기 대비 5.0% 증가

4월 16일, 국가통계국은 일련의 데이터를 발표, 조보적 계산에 따르면 1분기 국내생산총액은 33조 4,193억원으로 불변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동기 대비 5.0% 증가하고 전년 4분기보다 0.5% 포인트 빨라졌다. 산업별로 보면 제1산업의 부가가치가 1조 1,941억원으로 동기 대비 3.8% 증가하고 제2산업의 부가가치는 11조 6,135억원으로 4.9%, 제3산업의 부가가치는 20조 6,117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1분기 국내생산총액은 1.3%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분기 국민경제는 좋은 출발을 실현했다. 전국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6.1% 증가하고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전국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1.7% 증가하고 화물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5.0% 증가했으며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 평균치는 5.3%였다. / 인민넷